

대한가정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제 :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일 시 : 1987년 10월 31일(토)
장 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대한가정학회

순서

사회 : 주 정 숙 부회장

1. 개 회 10 : 30~11 : 30
2. 국민의례
3. 창립 40주년 기념식
회장인사.....손경희 회장
가정학회 연혁보고.....이현옥 총무
축사.....박태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
초대회장 말씀.....조기홍 초대회장
공로패, 감사장 증정
4. 제40차 정기총회 11 : 30~12 : 30
 - 총회개회손경희 회장
 - 전회의록 낭독.....지영숙 서기
 - 1987년 사업보고.....이현옥 총무
 - 1987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유춘희 재무 · 장명옥 감사
 - 198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유춘희 재무
 - 각 지부 사업보고각 지부장
 - 아시아지역 국제가정학회 보고
 - 기 타

<기 념 오 찬> 12 : 30~14 : 00
5. 기념 학술대회 사회 : 문숙재 부회장 14 : 00~17 : 00
 -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 기조강연 : 이기열 (연세대 교수)
 - 의 류 학 분야 : 강혜원 의류학회 회장 14 : 40
 - <후 식> 15 : 30
 - 식품영양학분야 : 김숙희 영양학회 회장
 - 가정관리학분야 : 익정빈 가정관리학회
 - 아 동 학 분 야 . 이희자 아동학회 회장
6. 폐 회 17 : 00

家政學의 專門性和 領域

——大韓家政學會 40周年 記念 基調講演——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李 琦 烈

緒 言

技術과 社會的 發展은 世界的으로 家庭生活的 內容을 變化시키고 있으며, 家庭의 形態도 바뀌어 家族의 數가 점차 늘고 있는 實情이다. 高齡者의 問題, 單一父母의 增加, 職業 女性의 增大, 家庭에서의 教育機能의 弱화, 世代間의 對話의 斷絶 및 家族 유대의 弱化等이 問題視 되고 있다.

또 每日의 生活의 重要 部分이 物質과 서비스의 選擇을 包含한 消費生活 위주이어서, 物質管理에 소홀하여지고 있다.

文化的 發展은 우리生活에 여러가지로 便宜를 주고 있지만 便利한 生活만이 진정한 幸福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家政學은 언제나 現地生活과 깊이 關聯되어 있으므로 家政學의 存立은 이 社會의 變化에 대한 適應度에 있다. 家政學은 家族福祉에 關한 여러 種類의 衝突을 調査하고, 家政學徒가 할 수 있는 專門性의 貢獻度를 檢討하여야 한다. 따라서 家政學은 科學技術 發展時代에 地域의 特性을 考慮하여 그 地域의 家政學徒의 發展을 돕고 未來의 行動에 대하여 必要한 專門 知識과 技術을 發展시켜야 한다.

I. 家政學의 專門性和 統合性

家政學은 人間生活을 基本으로 하여 家庭 및 이와 긴밀히 關連된 社會 現狀을 對象으로 生活의 質

의 向上과 더불어 人間生活의 開發을 圖謀하는 實踐科學이다.

家政學 各 分野의 研究의 進歩에 따라 專門分野가 細分化되어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專門分野가 달라도 家政學의 研究 및 教育의 中心의 時點은 “人間의 生活”에 있다고 본다. 卽 家政學은 家庭生活를 中心으로한 各分野가 有機的으로 增補되어 있으며, 이의 相互作用을 研究하는 것이 家政學의 特徵中的의 하나이다. 따라서 家政學은 應用科學이며, 專門性이 結集된 統合研究이며, 이 統合研究는 各分野의 單純한 分擔의 응집이 되어서는 안된다. 卽 專門의 틀에만 있지 않고 專門性을 가지면서도 對應性을 가진 教育이 바람직 하다. 그러므로 家政學은 各 專攻分野에서 가르칠 수 있는 基礎能力이 必要하며 이것이 家政學 發展에 連結된다고 본다.

現在 家政學의 專門性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論評이 있다.

家政學分野는 授業課目數만 많고 必要한 專門的 教育知識이 稀薄하다는 說과 家政學領域 卒業生은 專門性이 弱하여, 就聯의 關門이 좁다고 한다.

家政學이 統合的인 專門性이 弱한 根據에는 既存의 專門聯의 많은 部分이 家政學外的 專攻者에 의해 開拓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家政學 出身者가 자기의 專門性을 주장하려면 우선 既存의 專門職과 協力하여, 새로운 專門分野를 開發할 수 있는 創造力의 養成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家庭과 職業의 兩立, 生活樣式的 近代化, 多樣한 生活環境, 文化生活技術의 發展等, 새롭게 要求되는 必要한 專問家가 積極 養成되어야 한다. 卽 現實의 生活과 人類의 未來와의 關聯에서 생각되는 感覺, 思考力 모두를 뒷받침하는 科學的 知識과 手段을 動員할 수 있는 여러가지 方法이 모색되고 構成되어야 한다.

이런 方法은 現在 構成된 專問科目에서 各己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相互交流되는 形式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現在의 學科에 한과목 더 넓히는 形式으로는 目的 達成이 안된다고 본다. 家政學도 家政學 專攻을 위한 家政學의 基本科目이 強化되어야 하며(例를 들면 家政學原論等) 이를 통해 家政學의 哲學 및 價値觀을 定立하고, 激變하는 社會에 對處하는 새로운 家政學 專攻을 위한 基礎理論 및 技術을 補完하여야 한다고 본다.

家政學의 定義에 있어서 統合的 構成要素는 人間의 身體的 社會的 環境과 이들 두 要素間의 關聯性에 대한 포괄적인 研究이다. 家政學 專問性 計劃의 要素들은 家庭 生活의 社會的인 面과 教育的 過程을 併合하여야 한다. Bobbitt(1984)에 따르면 專門家 集團의 統合은 多樣한 支援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社會的 政治的 및 論理的 問題들에 대해 統合的 接近을 利用함으로써 家政學 分野內의 基本的 問題點의 解決을 찾기 시작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學術 計劃의 統合은 重要部分(核心)의 心要性으로 成就된다. 統合의 또하나의 方法은 各分野의 專門家들의 擴大를 通하여 家政學의 目標에 따른 必要性에 가장 잘 맞도록 連結하는 일이라고 본다.

II. 家政學의 專門領域

世界的으로 1800年代 後半期부터 시작된 家政學은 家庭과 家族들에게 그 生活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 努力하여 왔다. 약 1世紀가 지난 家政學의 內容과 Program은 家族의 實生活을 위한 계속적인 關心과 實踐으로 몇個의 專攻分野로 發展되었다.

家政學의 專門 領域은 兒童發達과 家族關係, 家族資源管理, 食品科學, 營養學, 臨床營養學, 家庭管理學, 家政學教育, 衣類織物學, 織造學, Design, 生活美術學, 室內裝飾學, 住居學, 一般家政學, 消

費科學, 그리고 Merchandizin 등으로 區分되어 왔다. 여러 基礎科學은(化學, 物理, 數學, 生物, 社會, 倫理, 哲學等) 이들을 專攻하기 위한 先取科學으로 基礎知識과 技術을 提供하였다.

現在 學士, 碩士, 博士 過程을 거친 全世界의 家政學 出身들은 卒業後 다음과 같은 職種에서 활약하고 있다.

1) 教育方面: 幼稚園 託兒所 및 어린이 研究院等의 教師, 國民學校, 中高等學校의 家庭科教師, 大學教授, 教育過程關係者, 地域社會의 敎導師, 展示, Workshop, Seminar 等에서의 發表者, 新聞, 放送의 記者 및 評論家, TV의 家庭分野 담당진문가, 그리고 其他 各分野에서의 專攻別指導者 등.

2) 科學 研究方面: 各專攻別 研究機關, 各種 營養士業務(學校, 産業, 病院 및 公共機關의 給食), 營養相談者, 食品分析研究 및 管理者, 衣類 및 織物研究員, 住宅 器機 研究員, 統計分析者, 兒童問題研究員 및 治療者(Child Therapist), 알콜中毒者의 治療士等

3) 事業分野: 消費者 Service業의 指導者, 호텔 / 식당管理指導員, Public Relation Agent, Fashion Designer, 織造 Designer, 室內裝飾事業, 住宅設計 및 자문가, Apparel Merchandizing Agent, 衣類 및 聯物工業, 養品工業 및 健康管理事業, 其他 個人事業等

4) 家族資源管理者: 事例研究者, 家庭經濟相談者, 結婚相談者, 兒童問題相談者, 低所得者의 經營相談者, 家族資源奉仕者, 青年運動評價者, 은퇴 및 老人問題相談者等

元來 教育이란 1) 傳統의 理念인 眞理 探究와 2) 時代의 變遷에 對應하는, 現代의 物質主義的 價値觀인 經濟的 利益 追求에, 目標을 두어야 하는 兩面性을 갖고 있다. 家政學 教育도 이 現實의 問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 過去 어느때 보다도 家政學 專攻卒業生들이 專門人으로 就業을 바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家政學 專攻者들의 任務와 役割의 폭이 어느때 보다 넓어지고 있다.

III. 家政學 專問者들의 家庭에서의 役割

오늘날의 複雜한 家庭狀況과 내인의 變化는, 家

庭을 위한 研究와 教育 Program을 支援할 必要가 있다. 卽 國民學校와 中·高等學校에서의 잘 計劃된 家族生活 教育의 Program이 必要하며, 이런 Program은 Parenthood(아버이로서의 신분, 친자 관계), 靑少年非行, 文盲, 10代妊娠, 알콜中毒, 老人問題等을 防止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卽 自身과 남을 위한 健全한 態度를 發達시키는데 重點을 두는 것도 이런 問題들을 解決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日本家政學會에서는(1984) 21世紀를 向한 家政學 教育의 基本點으로 國民學校, 中·高等學校 教育에서 Home Making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Home Making이란 家政學 教育의 基本으로 重要한 過程이며 人道主義에 대한 教育이다. 現在 많은 學生들은, 幸福한 家庭生活을 위하여, 子女養育의 責任이나 이웃에 대한 親密한 關心, 그리고 高齡者를 위한 도움등이 重要한 것을 무시하고, 그들 自身만을 간직하고 獨立시키는데 急急하고 있다. 生活技術의 變遷은 男女間에 高等學校때에 더욱 두드러 진다. 따라서 家政學 教育을 日常生活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教育에 反映되어야 한다.

家政學 專問人들은 未來의 家庭의 希望과 必要를 豫測하기 위해선 過去나 現在의 家庭의 問題點들은 理解하는 일이 重要하다. 現在 世界 家族構成도 變遷했으며, 21世紀가 다가오며 따라 사람들은 더욱 오래 살게 되고, 家族形態도 계속해서 變할 것이며, 教育制度 및 內容도 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IV. 專問人 養成을 위한 具體的 方案

(1) 教育制度의 再整備 必要

家政學 專攻者의 養成機關의 再整備가 要求되며, 젊은 學徒들의 積極的인 使命 意識의 고취는 물론, 社會人 現職者의 再入學이 許容되는 教育制度가 바람직하다. 즉 人間生活에 基本을 둔 生態學的인 家政學的 體系와 方向에 새로운 推進이 必要하며 個人의 家族生活에서 社會로 貢獻하는데 까지를 目標로 한다. 家政學은 역시 研究, 教育, 그리고 普及의 세 側面에서 均衡을 지켜가며 발전하여야 하고 또 學際間的 積極的인 協同으로 相互關聯되어

야 한다.

따라서 家政學은 各 領域分野의 專攻學問이 人類의 幸福增進 그리고 人間生活을 중심으로 統合 再整備되어 家庭에서 地域社會國家 그 외 世界로 遠心的으로 擴大하여 그 역할이 貢獻할 수 있어야 한다.

高等教育에서의 Academic Program은 學生들에게 1) 持術的인 知識을 開發할 수 있게 하고 2) 知的인 刺戟을 經驗할 수 있게 하며 3) 資源을 計劃하고 利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必要하다.

教育制度는,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知識과 文化를 傳達하는 基本的인 手段이다. 教育의 優秀性은 學生의 知的 發達과, 市民의 知的 能力增大와, 強忍한 社會를 만드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는 것이다.

家政學은 科學의 原理를 家庭環境에 작용시키는 觀點으로 발달되어 왔으며, 이 學問에서의 Specialist와 Generalist는 家族의 특별한 樣相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일단 어떤 課題나 關心이 確實해지면 組織의 接近方法을 통해서 家族制度나 다른 社會體制에 관한 機轉을 알아야만 한다.

(2) 學生들의 人智的 技術開發과 指導力 養成

家政學 專問人 養成에서 重要한 것은, 批判的이고 創造的인 人智的 技術을 學部過程에서 얻어야 한다. 教育을 받은 個個人은, 論理的 思考能力 明確한 意思소통, 必要한 質問處理, 훌륭한 判斷力으로 特徵지어진다. 모든 學生들은 文語的으로 口語的으로 意見과 判斷力을, 說明하고 防禦하는 能力을 開發하여야 하며, 現在의 問題點을 把握하고 複合的인 問題를 解決할 수 있어야만 한다.

批判的 思考의 開發은, 하나의 授業이나 修練會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強調되는 概念이나 課題들의 進行經路에서, 혹은 모든 過程에서 깊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한다. 즉 모든 學生들은, 問題를 究明하고 公式化하는 能力뿐 아니라, 그 問題들을 풀기 위한 方法들을 提案, 評價할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 한다. 또 演譯的인 推論과 歸納的인 推論을 認知하고, 推論에 虛構性을 體得할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만 하며, 表現된 資源들에서 發見되는 情報로 부터 合理的인 結論을 끌어내고, 그것을 理

性的으로 방어할 수 있는 能力의 訓練이 必要하다.

指導力 Program은, 學生들이 이미 指導의인 位置에 있을때 더욱 그들의 역할을 效果的으로 遂行하도록 考案되어야 한다. 學生들은 學問的인 分野에서 專問的인 指導力 概念을 開發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指導力은 研究의 領域에서뿐 아니라 問題解決의 經驗을 統合하는 過程에서 要求되는 것이기도 하다.

(3) 產學協同에 의한 職業開發의 必要

家政學 專攻 領域에서의 職業開發은 特別한 時間帶에서 特定位置에 配置하는 것이 아니라 未來의 專問職 開發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現在 統計的으로 職業移動 및 變化 그리고 技術의 폐쇄 등의 增加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의 教育의 目標은 특별한 職業을 成就하는 것이 아니라, 現在의 職業側面에서 方向을 變化시켜줄 수 있는 技術을 開發하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企業體와 學界 專攻者들과의 사이에서, 技術向上을 目標로 하여 젊은이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教育의 協力關係가 必要視되고 있다.

教育增進을 위한 效率의 協力關係를 開發하기 위하여는 企業界指導者를 科學者, 技術專問人들이 學生 教育에 積極的이어야 한다.

大學과 法人體는 모두 協力을 통하여서만 利得을 얻을 수 있다. 즉, 이들의 協助로 企業體는 教授陣의 知識, 大學의 施設에 接하게 되고, 大學은 學生들이 最近의 實際的인 世界의 問題를 解決하고, 企業體의 資源을 利用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진다.

學校와 企業은 모두 情報에 露出됨으로서, 知識과 名聲을 增加시키고 優秀한 持術의 支援을 통하여 相互利得을 얻는다.

高等教育에서 家政學 專問家들은, 產業生産, 企業家 或은 國公機關과의 接觸을 增加시키고 있다. 많은 數의 卒業生들이 事業, 企業生産 或은 公務員의 位置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좋은 現狀이라고 볼 수 있다.

家政學專問人들과 企業 産業과의 連結關係는 專問家나 전문가로 일하면서 學生들의 Internship Program으로 實務經驗을 부여하고, 事業과 生産 企業과 關聯된 研究를 하면서, 專問人 전문봉사자

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社會는 점차 격변하며, 첨단기술의 變化는 卒業生들이 現在 그들의 職業狀態에 머물러 있는 것이 不可能해지고 있다. 따라서 平生教育이 必要하게 되며, 大學에서는 教授들이 계속 教育하고 企業人들의 계속적인 고용인 再訓練이 必要하다. Video, TV등의 革新的 實務教授法이, 수시로 어떤 장소에서든지 專攻, 非專攻學生 및 企業人들에게 有用 되어야 한다.

(4) 國公政策 確立 協助 強化

家政學 專問家는 政府 및 國公機關과 連絡하고 大衆政策과 資源分配의 責任을 맡은 立法部 및 執行部의 사람들과 相互作用을 해야만 한다. 大學의 機關과 公務員, 政府職員들과의 協力關係는 教授陣開發을 促進하고, 家政學 教科開發과 Program의 生動感을 維持하여 教育目的 達成을 위한 革新的 政策 強化를 圖謀할 수 있다.

大學이 國家에 크게 寄與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教育市民을 만든다는 것이다. 家政學 專問家들은, 市民들이 個人 家族 自然資源 등의 經營에 對한 意思決定을 하는데 있어서, 過程과 評價에 관한 情報을 줄 수 있고, 家政이나 그들의 周圍環境 體系에 影響을 주는 政策에 대해 國民들이 敏感하게 할 수도 있다.

大學은 知識의 創造者이며 調達者이어서, 家政學은 많은 立法問題에 關한 知識을 提供해 줄 수 있다. 卽 家政學의 專問家는 政策이 가정에 미치는 有力한 效果에 關한 情報을 提供해 줌으로서, 政策樹立에 貢獻할 수 있다. 따라서 大衆政策의 發達을 보다 잘 理解하고 이에 寄與하기 위하여 大學과 政府의 連結을 強化시켜야 한다.

(5) 學問的 統合에서 본 새로운 研究開發

오늘날 家庭生活을 영위하는 各種의 生活物資는, 그의 生産技術의 進歩와 流通機構의 發達에 따라, 많이 變化되고 家庭生活을 크게 變遷시키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家庭問題 또 이에 따른 社會福祉의 問題等, 人間과 生活環境에 對應하여 家庭에서 取하여야 할 研究의 內容과 領域도, 점차로 變化하며 그 넓이도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現狀에서 家政學의 研究資料는, 生活의 各 專問領域에서, 專問家로 각기 테마를 深化하고, 또 한편 家政學에

서, 期待되는 研究을 發展시키기 위하여, 家政學으로서 獨自의인 研究體系를 確立할 것이 期待된다. 따라서 家政學의 重要性을 理解하고, 使命感을 가진 優秀한 指導者가, 各 專問領域에서 새로운 研究體系를 開發할 必要가 있다.

家政學의 細分化和 統合化를 考慮할때, 研究者와 教育者의 立場에서 생각할 수 있다. 研究에 있어서도 近來 統合성이 學際間에 共同研究로 水平的 研究가 論議되고 있다. 結局 研究에 있어서의 統合은 垂直的 接近보다 水平的 接近을 通해 이루어질 수 있다.

研究結果는, 재빨리 社會에 還元시켜, 生活의 充實向上 및 人類福祉를 위한 公認 및 普及에 實蹟을 올려야 한다.

研究結果가 社會에 利得이 될 수 있는 研究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 많은 提案이 있어왔다. 家庭生活의 여러가지 側面의 優先順位를 定하므로써, 研究主題의 選擇一致를 높일 수 있으며 또 포괄적인 Data Base System의 開發은, 研究結果의 信賴도와 이들 結果를 一般化할 수 있는 能力을 增加시킬 것이다.

V. 韓國 家政學 定立 研究機構에 創設에 關한 提案

大韓家政學會는 創立後 40年을 맞이하여 2,000名以上の 會員數를 維持하였고 1963년에는 社團法人으로 成長하였다. 그간 우리나라 家政學 專攻 會員들은 國內外로 論文發表를 통해 많이 活躍하였으며 이제는 亞細亞에서는 물론 世界各國에서도 指導의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家政學의 哲學, 理念, 目的, 對象, 方法等, 學問으로서의 本質의인 問題에 關하여 家政學 專問職을 가진 사람들중에서도, 明確한 家政學觀에 對하여 一致하지 못하고 있다.

激甚한 政治的 變動과 社會經濟的 混亂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우리 自身의 家政學에 대한 哲學이나 價値觀 或은 學問的 體系를 돌아보고 確立할 사이도 없이, 이 文化권 저文化領域에서 발표되는 學問的 知識과, 研究의 情報를, 被動的으로 받아들여, 適應하는데 急急하여 왔으며, 우리 自身의 問題를 積極的으로 解決하고, 새로운 發展의 길을 探

索하는 韓國的 家政學 定立의 진지한 協助討議가 不足하였다고 본다.

우리는, 自身들의 學問을 主體의으로 創造해 온 學者들만이 眞정 尊敬받는 學者 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學問的인 植民政策(Academic Colonialism)이라는 模倣과 無分別한 導入에서 벗어나, 새로운 未來의 도약을 위한 韓民族의 긍지와 5,000年의 傳來生活文化의 슬기를 살리면서 21世紀의 첨단과학의 統合調和에서 創出되는 各種 韓國家政學의 定立이라는 막중한 課業을 다함께 開拓하고 成就해 나가자고 提言하는 바이다.

VI. 結 言

1) 家政學의 專問家들은 多樣한 背景과 展望을 가진 個人들과 함께 일할 機會를 가지며 韓國과 世界에 實存하는 關心事에 理論的 構成과 技術的인 進歩를 適應시킴으로서 學問的 貢獻을 할 수 있다.

2) 家政學의 研究 및 教育의 中心의 焦點은 “人間의 生活”에 있다. 家政學은 家庭生活을 中心으로 한 各 專問分野가 有機的으로 結合되어 있으며 이들의 相互作用을 研究하는 것이 家政學의 特徵中的의 하나이다. 즉 家政學은 應用科學이며 各分野의 專問性이 結集된 綜合學問이다.

3) 家政學의 專問領域은 分野別 專問人, 統合된 專攻學問에서 創出된 專問人, 그리고 Home Marketing을 專擔하는 家庭主婦等의 努力으로, 變遷하는 時代와, 續出되는 Idea開發로, 날로 그 內容의 多樣하여지고 있다.

4) 家政學 專問人 養成을 위한 具體的 方案으로는, 現教育制度의 再整備, 學生들의 人智의 技術開發과, 指導力養成의 必要, 産業協同으로 職業開發, 政策確立의 協助強化, 그리고 國際間協同에서 오는 새로운 研究開發等이 至急하다.

5) 5,000年의 歷史를 지켜온 韓民族의 긍지와 約 1世紀등안의 家政學教育을 거처온 責任에서 “韓國 家政學의 定立을 위한 研究機構”를, 大韓家政學會 40回年을 맞이하고 激變하는 첨단科學時代 21世紀를 맞이하는 이 時點에서, 大韓家政學會에 創設할 것을 提案한다.

參考文獻

I. 國內文獻

1. 姜蕙遠, 家政學의 方向, 大韓家政學會誌, 18: 57~62, 1980.
 2. 大韓家政學會編, 家政學 系列學科의 模型教育 過程 開發研究報告書, 1982.
 3. 大韓家政學會編, 大韓家政學會史, 新光出版社 1984.
 4. 家政學 研究의 새로운 試圖, 大韓家政學會, 春季學術大會, 1986.
 5. 文秀才, 李琦烈, 韓國家政學의 未來發展을 위한 檢討, 大韓家政學會誌 22:1~18, 1984.
 6. 文淑才, 家庭管理學의 社會的 寄與에 關한 考察, 大韓家政學會誌, 19:115~121, 1981.
 7. 尹福子, 金敬姬, 家政學 哲學에 대한 Vincenti 의 사적 사상에 관한 고찰, 大韓家政學會誌 21: 1~18, 1984.
 8. 유희경, 박일화, 이정수, 이병림, 김숙희, 家政學의 檢討와 未來의 方向提示를 爲한 研究, 大韓家政學會誌, 13:1250, 1975.
 9. 李琦烈, 2000年代를 바라보는 家政學, 韓日家政學會 基調講演, 1985.
 10. 이기열, 가정학의 중요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4:139~149, 1986. (英文 Singapore 가정학교사협회에서의 강연)
- ### II. 國外文獻
1. Bobbitt, N. (1984). Home economics: An integrative profession. Unpublished manuscript.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Human Ecology, East Lansing MI.
 2. Branscomb, L.M. (1984). America's rising research alliance. American Education, 20 (3), 43-46.
 3. Brown, M. and Paolucci, B. "Home Economics A Definitio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Washington, D.C., 1979.
 4. Brown, M. (1983), Point and counterpoint: Response to "Hindsight and foresight." *Journal of Home Economics*, 75(2), 48-59.
 5. Chark, K. (1985). Teaching undergraduates to be leaders.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Bulletin*, 37(7), 11-14.
 6. Craig, K. (1983), Let's keep home economics a resilient profess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75(2), 44-46.
 7. Cross, K.P. (1978). The adult learner. *Current Issues in Higher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8. Dickerscheid, J.D. (1984). Think globally. *The Candle*, 65(2), 12-14.
 9. Firebaugh, F.M., (1980) "Home Economics in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Current Tren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4.
 10. Green, K. (1984), Home economics research: A macro view.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514-522.
 11. Harper, L.J. (1981), Home economics in higher education: Status and trends 1980. *Journal of Home Economics*, 73(1), 14-18.
 12. Horn, M. (1981). Home economics: A recitation of definition. *Journal of Home Economics*, 73(1), 19-23.
 13. Horn, M., & East M. (1982). Hindsight and foresight: Basis for choice. *Journal of Home Economics*, 74(4), 10-17.
 14. Keiser, M.B. (1984). Critical needs for home economics research.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450-490.
 15. Solmon, L.C. (1984). A theory of innovation in graduate education. *New Directions in Higher Education*, 12(3), 21-30.
 16. Vincenti, Virginia; B., "A History of the Philosophy of Home Econom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A, 1981.
 17. Volker, C.B., & Deacon, R.E. (1982). Evaluation of benefits from research in 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321-331.
 18. 日本家政學會編: 家政學將來構想 1984-1, 光生館(1984).
 19. 失部章彦, "家政學의 Paradigm" 「나의 길 30年에서」 東洋經濟印刷株式會社 1983.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의류학의 전문성과 영역—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학과

강 혜 원* · 조 길 수

I. 서 론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국의류학회장의 입장에서 접근하려면, 결국은 의류학을 가정학의 범주안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가정학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고 난 후 의류학의 전문성과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한다.

1902년 Lake Placid Conference에서 내려진 가정학의 정의를 살펴보면, 가정학이란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측면으로는 인간의 인접한 물리적 환경과, 다른 측면으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에 관한 이상, 원리, 조건, 법칙들의 학문이며 특별한 이 두 요인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¹⁾이라는 것이다.

의류학 영역은 의복분야(clothing field)와 섬유분야(textile field)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의복분야는 사회과학측면과 예술을 근거해서 이해할 수 있고, 섬유분야는 주로 자연과학측면에 의거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과 가정의 의복을 논하려면 의복 또는 섬유분야로 분리할 수 없는 상호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의류학은 이 두 분야가 종합되어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정립된 응용과학이다. 또한 가정학 철학의 범주에 머물면서 의류학의 성격을 생각해 볼때 의류학의 궁

극적 목표는 의생활 향상을 통해서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제기해 보고싶다. 미래에도 의류학이 여러분야와의 경쟁사이에서 또 문교부의 방침, 학교당국의 학과병합 정책의 압력하에서도 여전히 뚜렷한 학문분야로써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위해서 의류학이 당면한 문제점과 강점^{2,3)}을 생각해 보는 관점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1) 의류학의 문제점

첫째, 분야의 이미지(image)에 대한 것이다. 타분야에게 의류학이 이론적 학문체제를 가진 분야로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홍보가 잘 안되고 탁월한 지도자나 출판물이 적고, 주로 기술숙련에 비중을 많이 두며, 새 프로그램의 개발 보다는 전통적인 모델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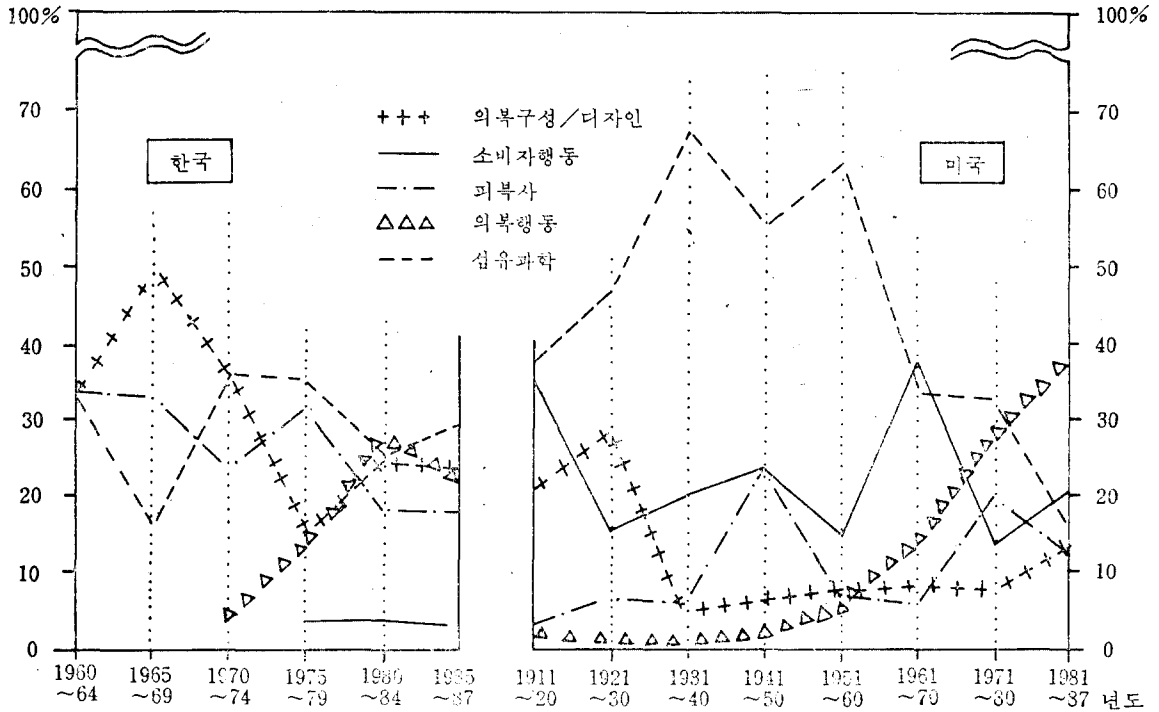
둘째, 초점의 결여(lack of focus)이다. 의류학의 다양성은 강점도 될 수 있으나 지나친 세분화는 마치 단편적인 전문화의 집합체처럼 되어버려서 분야가 하나의 큰 통합된 시스템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2) 의류학의 감점

첫째, 의복의 보편성이다.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의복은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며 인류가 존속하는 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이점학문간 연구(interdisciplinary metho-

* 발표자



〈도표 1〉 국내외 미국의 의류학 5개분야 논문의 백분율 분포도

dology)의 용이성이다. 의류학은 타분야와의 폭넓은 공동연구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세제, 취업분야의 다양성이다. 중요산업분야와 연결되어 섬유업체나 기성복업체 또는 의류판매 관련분야로의 진출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II. 의류학의 연구경향 및 교과과정 분석

(1) 연구경향

어느 학문분야에서나 연구는 지식축적에 기초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의류학 연구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대에 따른 의류학의 주요관심사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정학 범주의 학술지에 수록된 의류학 연구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학술지는 「한국의류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CTRJ),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HERJ), *Journal of*

Home Economics(JHE) 이다.

분석방법은 의류학을 5개분야(의복구성 및 디자인, 소비자행동, 피복사, 의복행동, 섬유과학)로 분류하고 게재된 논문의 빈도수와 5개분야의 상대적인 비율을 10년 또는 5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이때에 HERJ와 JHE의 1910년부터 1980년까지의 내용은 Chowdhary와 Meacham⁴⁾이 article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도표 1〉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표된 의류학 연구의 상대적 비율을 분야별로 비교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동향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의복구성분야는 한때 연구가 활발하였으나 뒤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피복사 또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반면, 의복행동분야는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에 다소 감소경향을 보였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연구동향을 비교해 볼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소비자행동분야(fashion marketing 포함)로서, 미국은 일찌기 1910년대부터

〈표 1〉 국내외 미국 학술지에 발표된 의류학 5분야 연구의 빈도분포

기간	분야					합 계
	의복구성/디자인	소비자행동	피복사	의복행동	섬유과학	
한국학술지 ^a	f() ^c	f	f	f	f	f
1959~1964	2(1)	—	2	—	2	6
1965~1969	3	—	2	—	1	6
1970~1974	9	—	6	1	9	25
1975~1979	13	3	26	11	29	82
1980~1984	37(2)	6	28	41	39	151
1985~1987	23(4)	3	17	22	34	99
합 계	87(7)	12	81	75	114	369
미국학술지 ^b						
1911~1920	13	22	2	1	23	61
1921~1930	26	14	6	1	43	90
1931~1940	22	89	29	5	300	445
1941~1950	30	104	51	15	250	450
1951~1960	36	69	38	24	294	461
1961~1970	34	155	26	56	142	413
1971~1980	24	47	69	93	111	344
1981~1987	20	29	18	54	23	144
합 계	205	529	239	249	1186	2408

- a 대한가정학회지 : 1959~1987, No. 2
 한국의류학회지 : 1977~1987, No. 1
 b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72~1987, No. 3
 Journal of Home Economics: 1911~1987, No.1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982~1987, Vol. 5.
 c 의상디자인 분야 빈도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비로서 시작되었고 그 빈도도 매우 낮다. 피복사분야는 우리나라는 초기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약간의 감소경향을 보였고, 미국은 감소, 증가를 반복했으나, 대체로 증가하였다.

〈표 1〉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표된 의류학 연구편수의 분야별 빈도분포이다. 분야별 연구의 전체빈도는 한국과 미국이 다같이 섬유과학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내는 피복사, 의복구성, 의복행동의 순이었고 미국은 소비자행동, 의복행동, 피

복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섬유과학을 다시 세분화하여 6개분야(의복패적감, 세척 및 피복관리, 섬유가공, 염색, 섬유평가, 섬유고분자)로 분류하여 시대별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논문편수는 세척 및 피복관리가 가장 높았고, 의복패적감과 섬유평가가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시대별 연구동향을 보면, 섬유가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세척 및 피복관리는 그 증가율이 1980년대 후반에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는 1982년에 발간이 시작된 CTRJ에 실린 자료만을 세분화 했으므로 그 편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의복패적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각 분야의 시대에 따른 연구동향의 분석에서 어떤분야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가 하면, 어떤분야는 비록 전체빈도는 많을지라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동향의 분석을 토대로 미래에는 어떤방향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인가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의류학의 교과과정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미국대학의 학부교과과정만을 Rudd⁵⁾의 연구와 입수가가능했던 8개 대학교 교과개설 과목에 의해서 살폈다.

Rudd는 의류학과가 있는 4년제 대학에 우송해서 돌아온 설문지 303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 4개의 전공 program으로 분류하였다. 그중 가장 많은 학교가 fashion merchandising program(75%)을 내놓고, 다음이 clothing/fashion design(28%), general textiles & clothing(27%), textiles(19%)이었다. 또한 응답한 학교의 1/2이상에서 공통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6가지였다. 즉 basic textiles, clothing construction, fashion merchandising, tailoring, historic costume, social psychological/cultural aspects of clothing으로 나타났다.

근래에 교과목에서 보장된 내용들은 subject matter, field experience opportunity, interdisciplinary course, professional preparation, energy related concerns, special interest concerns이었다. 한편 교과목에서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clothing construction에 관계되는 subject matter와

〈표 2〉 국내외 미국 학술지에 발표된 섬유과학 분야 연구의 빈도 및 백분율 분포

기간	분야						합 계
	의복 패적감	세척/피복관리	섬유 가공	염 색	섬유평가	섬유고분자	
한국학술지 ^a	f(%)	f(%)	f(%)	f(%)	f(%)	f(%)	f(%)
1959~1964	1(50)	—	—	1(50)	—	—	2(100)
1965~1969	—	—	—	—	1(100)	—	1(100)
1970~1974	3(33.3)	2(22.2)	—	—	4(44.5)	—	9(100)
1975~1979	3(10.3)	12(41.4)	3(10.3)	6(20.7)	5(17.3)	—	29(100)
1980~1984	6(15.4)	15(38.5)	6(15.4)	2(5.1)	8(20.5)	2(5.1)	39(100)
1985~1987	10(29.4)	8(23.5)	7(20.6)	2(5.9)	5(14.7)	2(5.9)	34(100)
합 계	23(20.2)	37(32.4)	16(14.1)	11(9.6)	23(20.2)	4(3.5)	114(100)
미국학술지 ^b							
1982~1987	5(35.7)	3(21.4)	2(14.3)	1(7.1)	3(21.4)	—	14(100)

a. 대한가정학회지 : 1959~1987, No. 2

한국의류학회지 : 1977~1987, No. 1

b.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982~1987, Vol. 5

〈표 3〉 미국 의류학 및 관련분야 학과명칭과 학부과정의 학위취득 선택 영역

학 과 명 (Department)	학위취득 선택 (option)	학 교 (University)
Clothing and Textiles	Fashion Merchandising Fashion Merchandising/Marketing education, Apparel Design, Textiles	Virginia Tech.
Clothing and Textiles	Fashion Design Fashion Merchandising Textiles	The Florida State Univ.
Textiles and Clothing	Merchandizing Textile science Apparel and Textiles	The Univ. of Tennessee
Clothing, Interior Design and Textiles	Clothing and Textiles Fashion Merchandising Interior Design	Washington State Univ.
Textiles, Design and Consumer Economics	Merchandising Technology Design	Univ. of Delaware
Design and Environmental Analysis Courses	Interior Design Apparel Design Textiles Apparel and textile Management Human-Enviromental relations	Cornell Univ.
Human Environment and Design		Michigan State Univ.
Home Economics		Illinois State Univ.

〈표 4〉 미국 8개대학*의 의류학 전공영역의 학부개설 교과목 분류 및 개설과목수

개설 교과목 분류	총과목수	과목내 분류	과목수	Field study 수
Merchandising	45개	Apparel	30개	7개
		Textiles and Apparel	10	3
		Textiles	6	2
Textiles	35	General	11	2
		Chemistry	10	
		Evaluation	9	
		Care	5	
Clothing	69	Clothing Construction	25	
		Apparel Design	21	
		Historic Costume	12	
		Social-Psychology of Clothing	11	
Others	16	Special & Independent study	16	

a출처 : 〈표 3〉에 제시한 8개대학의 1982~86년 사이의 대학요람자료에 근거하였음.

laboratory course였다.

학과명칭과 전공프로그램(option)에 따라 분류한 것은 〈표 3〉과 같고, 미국의 8개 대학의 의류학 및 유사학과의 전공개설과목 분류 및 개설과목수는 〈표 4〉와 같다. 학과명칭은 전통적인 Clothing & Textiles의 명칭이외에도 Design, Merchandising, Human Environment등의 보다 명확한 학과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개설과목수의 분류결과는 4개 영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clothing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merchandising이 단일과목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개설되고 있고 그중에는 field study 과목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상의 교과과목의 추세는 우리나라 교과과정 개편에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의류학분야의 기본접근개념 및 독특성

(1) 인간생태학적 접근

의류학분야에 대한 기본접근 방법으로 인간생태학적(human ecological)접근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Bubolz¹⁶⁾와 Pederson¹⁷⁾의 설명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기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그들사이의 상호작용을 생태체계(ecosystem)라고하며, 이는

인간행동연구에 대한 증거들을 제공한다. 인간생태체계(human ecosystem)는 인간, 환경,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3개개념으로 구성된다. 또 환경은 다시 3가지로 분류되어 자연환경, 인간에 의해서 구성된 환경(human constructed environment), 그리고 인간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적인 환경(human behavioral environment)이다. 그러므로 의복은 인간의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의 하나로 본다.

이러한 인간생태학적 접근은 의류학의 전공영역의 이론적통합을 제공하고, 이론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전체환경(또래집단, 지역사회, 사회적 태도, 법률, 습관, 기후등)에서 전체적인 ecosystem 접근을 할 수 있다. 예를들면, 개인이 의복을 선택할 경우 가족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아니라 그외에 개인차원을 넘은 여러요인으로 부터 영향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류학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환경안에서 인간이 적응하는데 의복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2) 분야의 독특성(Uniqueness)¹⁸⁾

의류학이 존속하려면 타 분야에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못하는 title의 지식체계를 소유해야 한다. 따라서 의류학분야만이 소유하는 독점적인 것이나 눈에 띄게 다른점을 가진다는 것이 필요하다.

의류학은 여러분야의 세분화된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독자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 미래사회에 부합되는 분야로 독특성, 관련성, 중요성을 다시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의류학은 다음과 같은 국가적·사회적차원에서 의 중요한 이슈(issue)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 의류상품의 수출확장
- 섬유소재의 안정성 및 기능성측면
- 에너지절약을 위한 보온성소재 개발
- 알레르기, 환경, 정신질환치료등의 건강측면
- 신체장애자, 노인, 어린이를 위한 기능적 심미적 측면
- 한복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직업, 역할, life style과 의복과의 관계

IV. 전문직 진출과 새로운 교육방향

교육이 기술의 습득 및 훈련에 치중한다면, 오늘날의 급속한 변화추세에서 그 내용은 학생들이 졸업한 후 10년이 채 못가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어려움이 따르나 교육과 훈련은 현실에 부합되면서도 2,000년대에도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미래학자들이 보는 미래사회의 특징은 정보사회이고 세계 경제체제이며 동시에 High tech/High touch가 중요시된다. 또한 가정이 사회기능의 중심단위로 다시 등장하고 소비자는 좀더 자신에 의존하고 능동적인 prosumer(producer와 consumer의 합성어)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류관련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의 자질은 소비자행동, 소비자경제등 관련분야의 지식을 갖추며 또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생산, 품질관리에 관련된 섬유제품평가 기술지식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섬유제품시장을 분석하고 각 문화의 특성에 따른 독특한 요구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의류학에서 현재 가능한 전문직 진출분야로는 의상디자인분야, 의류상품분야, 소비자교육분야, 바이어(buyer)관련분야, 섬유제품평가분야등을 생각할 수 있다.

시대변화가 가져온 의류학분야와 관련된 새 진

출분야의 직종으로는 fashion-coordinator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의복과섬유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지식과 함께 심미적인 감각과 경영지식 및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외에도 미래에는 의류산업분야의 관리직종 등 현재에는 의류학 전공자가 진출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의류학전공자의 다양한 전문직종의 탄생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또한 의류학의 전문영역으로서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축적을 위해서는 연구자(researcher)의 적극적인 양성 및 진출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자 뿐만아니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미래의 변화하는 사회적경향에 대비해서 의류학이 미래에도 존속하려면, 이처럼 전공자들의 활발한 전문직 진출과 아울러 이에 부응하는 교육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교육목표

첫째,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른다.

둘째, 세계적인 안목에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적이고 평가적인 사고능력을 기른다.

위와같은 교육목표에 부응하는 전공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2) 전공교육의 방향

첫째, 하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의류학분야내의 세분화된 전문지식을 통합하여 사용한다.

둘째, 전공과목에 대한 효과적인 전문기술습득 및 훈련을 현장실습을 통해서 실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셋째, 생산지향적인 의류학 전문교육을 강조한다.

네째, 최소한의 핵심적인 전공과목(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설정하고, 전공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함으로써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

다섯째, 의류학내의 각 전공분야의 지식을 통합·활용하게 하기위해서 team-teaching을 통한 교

육프로그램을 모색한다.

이를위한 교육자의 자질향상으로 전공분야의 최첨단기술에 대한 재훈련과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미래에도 의류학 전공자의 전문적 진출방향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하나의 독특한 학문분야로서 의류학이 존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참고자료〉

- 1) 강혜원, 家政學의 方向, 「대한가정학회지」, 18 (2), 1980.
- 2) Horn, M.J., Clothing and Textiles: Future by Emergent Desig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2, No. 2, 1984.
- 3) Loker, S. and Flynn, J.Z., Investing in the Future: ACPTC Northeastern Subregion Takes Stock,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2, No. 2, 1984.
- 4) Crowdhary, U. and Meacham, E., Changing Focus of Textiles and Clothing within Home Economics: An Analysis of Two professional Journal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2, No. 1, Fall/Winter, 1983~84.
- 5) Rudd, N.A., Textiles and Clothing Curriculum: Current Trends and the Future Outlook, *ACPTC Proceedings*, 1982.
- 6) Bubolz, M.M., Eicher, J.B. and Sontag, M. S., The Human Ecosystem: A Model, *Journal of Home Economics*, Spring, 1979.
- 7) Pedersen, E.L., The Ecological Alternative: An Option for the Futur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2, No. 2, 1984.
- 8) Sproles, G.B., On Competition and the Futur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2, No. 2, 1984.

영양학의 전문성과 그 영역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김 속 희

영양학은 상당히 새로운 학문이다. 영양학이 학문으로서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금세기 초로 보아진다.

어느 학문이건간에 학문의 발전이란 인류의 생활문화 발전과 템포에 맞추어 이루어졌듯이 영양학도 역시 인류의 건강유지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발전해왔다고 본다.

영양학의 목표는 인류의 건강을 유지하여 삶을 윤택하게 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학문으로서 영양학이 체계화된 시기는 금세기라고 보지만, 영양학의 태동시기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이집트 회담 문명시대를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최고(最古)의 시대로 보아야 한다.

인류의 건강 관리에는 시대적으로 fashion이 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볼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질병의 치료에 관심을 두어 건강 관리를 하려고 하였으며, 과학문명이 발달된 현대로 접근해올수록 질병을 방지하여 질병에 접하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많이 하고 있다.

영양학이 체계화되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본 주제를 설명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영양학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고대 질병중에서 야맹증이라든지 골병(骨病)같은 것은,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역사가 길다. 그런데 야맹증의 치료를 위해서 소간을 다량 섭취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양지 바른 곳에 사는 사람보다 음지나 굴속에 생활하는 사람에게서 골격 질병이 많이 유발하였다는 기록은 흔히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질병은 부족한 인자가 요인이 되어 질병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상해 보려는 노력이 일찌기 있었다. 한편 B.C. 4세기경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는 과식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신체의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일깨웠다고 본다. 히포크라테스가 저술

한 “공기·물·장소(Air·water·place)”란 책은 17세기까지 구라파에서 의학도들의 필독서이 있었다. 이 책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자연의 자원인 물·공기와 또한 자기가 처해있는 장소 즉 거거하는 생활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이 유지된다는 생활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비정상적인 병적 요인의 제거와 신체의 조화속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의 철학이 영양학을 지배해온 주요 철학이라고 본다.

인류의 건강유지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요인은 인구의 증가 문제일 것이다.

역사를 더듬어서 16세기를 거쳐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각 지역의 인구 밀도는 극히 낮았었다고 본다. 예로써 구라파의 인구는 이때에 1억이만의 인구로써¹⁾ 상당히 밀도가 낮았으며 우리나라만 하여도 임진왜란 당시에 전체 총 인구가 800만²⁾ 정도에 지나지 않았었다. 인구밀도가 낮은 시대에는 생활양태가 전원생활을 주로 하였으며 산업도 농업이 위주가 되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기반하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다. 이 당시 사회구조 문제로써 지주계급과 노예계급이 뚜렷이 나타나 있어서 소수의 지주계급을 위해서 다수의 노예인구가 빈곤에서 허덕이는 문제가 있었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수의 지주계급을 제외한 다수의 빈곤계급은 영양 불량내지 실조에 허덕이게 되었으며 과중한 노동량에 시달려서 피곤과 영양불량으로 인한 질병이 이 당시 많은 수의 인구를 괴롭혀왔다고 본다.

반대로 소수의 지주계급인 지배계급은 현대인이 고민하고 있는 성인병 종류로 상당히 고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영국의 산업혁명도 그 당시에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는 인구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산업혁명은 곧바로 사회혁명내지 생활문화혁명으로 연결되었고, 도시화의 문제·저소득계층의 문제·환경오염의 문제·위생의 문제·전염병의 문제·영양 실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또 한편 현대과학 발달에 획기적인 쟁점이 되었던 Newton의 운동방정식은 인과응보라는 사고 체계를 과학연구에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건강을 해치는 요인의 분석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역학·위생학·환경학·병원세균학·화학이 발달을 하게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서 여러가지 다양한 영양 결핍증의 원인을 분석해냄으로써 괴혈병에 Vitamin C, 구루병에 Vitamin D, 각기병에 Vitamin B, 악성 빈혈에 Vitamin B₁₂와 엽산, 불임증과 근육무력증에 Vitamin E, 출혈병에 Vitamin K등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규명이 되어 왔다.

따라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병원균의 항체 생성을 위한 Vaccine이 발견 되어서 접종하기에 이르렀으며 특정한 병원세균의 증식을 막거나 박멸할 수 있는 항생제의 발견이 속속 이루어져왔다.

19세기 중엽 이후 20세기 초기내지 중기에 이르기까지 1세기내지 1 1/2세기 동안에는 인류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주로 기울어 왔던 노력은 병이나 비정상상태의 원인을 규명하여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원인이 부족해서 나타났을 때에는 부족한 원인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엽이후에 이르러서는 지역적으로 급증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한 산업의 고도 성장과 이의 결과로 맛보게 되는 물질의 풍요와 자동화된 환경이 또다른 양상의 건강문제를 야기시

키고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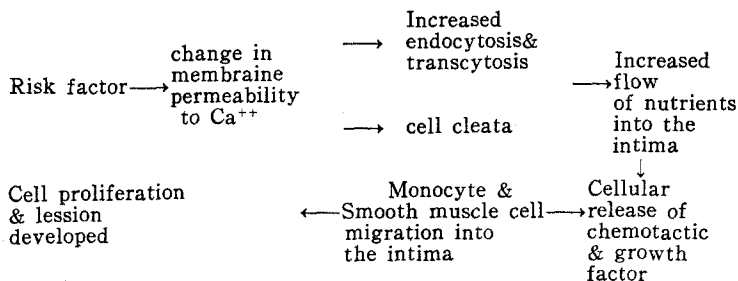
1950년대 이후로 서구세계에서는 비만의 문제가 노골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 결과 고혈압·당뇨병·심지어 암의 발병까지 심각한 문제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고혈압의 문제만 하여도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초기 연구자들은 동맥경화 현상을 촉진한다고 보는 cholesterol의 문제를 대두시켰다. 동맥경화증의 문제를 놓고 연구의 방향은 cholesterol의 체내 합성과 분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HMG CoA reductase와 7- α -hydroxylase의 체내 작용 규명 문제, 섭취된 cholesterol의 흡수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흡수 방해요인으로 dietary fiber 문제와 관련되어 식물성 steroid의 섭취문제, 합성 glycoside와 bile acid의 배설문제, cholesterol 체내 대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HDL, LDL등 지단백의 대사 및 각 조직 세포에 이들의 receptor 변화의 문제와, 유전인자와 관련문제, 동맥조직 세포자체의 증식문제를 보기 위한 macrophage foam cell의 문제, 조직세포의 증식에 관련된 trace element와 proteoglycan의 문제, 등등이 고려되고 있다.

동맥경화가 생기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기로 하였다.

또한 혈액의 점도와 thrombosis 생성과 관련이 있는 prostagrandine, prostacyclin 및 antioxidant와 관련지어 인간의 동물성식품을 생선단백질로 대체해보고자 하는 생각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당뇨병의 문제는 주로 중년이후에 나타나는 insulin에 예민하지 않은(insulin-nonsensitive diabetes)당뇨병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Insulin에 예



<동맥경화 발달의 가설>

민한 당뇨병 (insulin sensitive diabetes)은 당뇨병 인구가 적으며 또한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고 대책이 강구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기.

Insulin non-sensitive diabetes는 조절이 가능하며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세포 표면의 insulin binding site가 변화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즉 binding site의 수가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계속적으로 당의 섭취량이 감소되고 열량의 과량섭취로 오는 비만이 있는 개인의 경우 당의 stimulation이 체내에서 점점 감소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는 insulin의 반응기전이 약화되어서 생기는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늙어감에 따라서 당의 섭취량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활동량을 유지할 때 당뇨병의 발병율을 낮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다.

또한 지방구 표면의 Insulin binding site의 구조연구와 관련된 oligosaccharide의 문제, glycogen문제와 합성시에 작용하는 hormone sensitive enzyme의 작용 및 이에 관련된 cAMP의 양, cAMP synthase와 cAMP phosphodiesterase의 작용의 비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암과 영양의 문제에 있어서 초기에는 암의 발병과 식사내용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역학적 조사를 시도함으로써 암이 발병되는 현상파악에 공헌하였다. 그리하여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서 보다 빈번히 발병되는 암의 종류가 소화기계 암으로, 동양인은 소화기 윗부분의 암, 즉 위암 같은 것이며 서양인은 소화기 아랫부분의 암, 즉 대장·직장암의 발병율이 높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즉 위암의 발병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배가 고프다 때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고, 다음에는 배가 몹시 고프게 해서 위장을 극도로 비우는 일의 반복이 자주될 때 위암 발병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불결한 환경에서 또한 virus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된다. 직장·대장암은 섬유소 섭취량이 감소되고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증가되어서 변의 배설량이 감소되는 때에 주로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

유방암의 발병은 olive유의 섭취량이 높은 유대여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는 것으로

보면 식물성유중에서 다불포화지방산의 섭취가 높고 따라서 지방 총섭취량이 높은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기타 부위의 암의 발병도 여하튼 동물성식품의 과량섭취가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이외의 요인으로 흡연, 음주, chemicals(공해요인), stress 등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영양소와 암과의 관련 분야에서, 암 발병과 관련된 추정영양소로 vit. A, vit. C, vit. E, 지방, 단백질, 열량총량, 무기질로서 Se, Ca,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영양소가 관련하는 발암단계는 initiation단계가 아니라 promotion단계에서 영양소가 관계하며 또한 발암물질의 activation에 영양소가 관련되기도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nitrate가 nitrosamine 형성하는데 관련하여 vit. C가 이의 형성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nitrosamine 형성물질을 섭취할 때는 vit. C를 필히 함께 공급함으로써 암의 발병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타 문제로 최근에 건강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면역, 노화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면역능력은 영양과 관련지워서 명백히 나타난 것은 없지만 지방섭취량과 면역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영양불량인 사람에게서 전염병의 감염율이 높은 점으로 보아 면역능력의 저하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노화의 문제는 영양과 관련지워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노인에게서 insulin sensitivity가 저하되며 glucose tolerance에 비정상상을 나타내는 것은 지속적인 당의 섭취량 저하가 낳은 결과일 것으로 생각하며 지방의 체내 축적량 증가는 노화와 더불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노화과정에서 볼 수 있는 체구성성분의 변화의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무기질대사와 관련이 있는 bone의 비정상성이 노화와 더불어 나타나며, 최근에는 수많은 미량무기질이 체내 효소작용과 관련되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 중 한 예로써, Cr과 Si은 superoxide활성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이 미량원소의 섭취부족으로 세포막이 파괴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특히 mitochondria outer membrane의 파괴는 ATP생성에 지장을 초래하며 따라서 O_2 소비량이 감소되어 노화를 촉진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나의 흥미있는 동물현상조사로서, 물고기와 닭은 노화현상이 외면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들은 모래를 먹고 살기 때문에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져서 그런것이 아닌가 추측도 일부에서 하고 있다.

또한 노화에 따라서 면역능력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ymus는 일찌기 사춘기 이후가 되면 그 무게가 감소하며 따라서 lymphocyte 생성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서 T-cell 형성 능력이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helper나 suppressor의 활성이 억제되어 B-lymphocyte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봄으로써 cell-mediate나 humoral immunity의 능력이 연령과 더불어 저하됨이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된 최고 영양학의 연구경향은 영양학의 영역이 점점 넓어가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양학은 분자생물학, 세포학(cytology), 생화학, 면역학, 병원세균학, 등등과 같은 분야와 새로이 접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 영양학에서 문제삼고 있었던 고전질병(classic disease)은 대개가 결핍이라는 대원칙적인 상황하

에서 그 원인이 규명될 수 있었다. 부족된 물질을 보충해줌으로써 증세의 경감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인이 고민하는 영양과 관련된 질병은 그 병의 발병원인이 불분명하며 어떤 영양소의 결핍이라기 보다는 과잉섭취가 오히려 문제되고 있다.

고전질병을 유발시킨 원인의 결핍은 가난과 관련되어 있으며 생활환경의 궁핍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영양문제를 유발시킨 문제는 과잉섭취로 대부분이 유발되었다고 보지만 그중 결핍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문제도 있는데 이는 가난이나 생활환경의 궁핍보다 무지하기 때문에 결핍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본다.

21세기를 여는 문턱에 다가선 우리들의 학문은 과연 20세기에 까지 이룩한 인류의 문명을 토대로 한 학문 발전이 과연 내자신의 행복을 증가시켰는가 하는 관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그 건강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비중이 가장 큰 식생활은 인류의 건강유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 생활양식에 알맞은 식생활형태와 내용의 권장을 위한 끊임없는 전문인의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家庭管理學의 專門性과 領域

— 가정관리학은 무엇을 위한 학문인가? —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입 정 빈

I. 서 론

어느 학문이든지 그 학문의 연구목적을 분명히 규명할 수 있어야만 하나의 학문으로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정관리학의 독자성과 전문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가정관리학은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확립되어 연구된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연구내용이나 연구방법은 초기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해왔다. 그것은 다른 학문의 경우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날로 발전하는 학문적인, 다각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가정생활은 가정 內的인 환경요인과 가정 外的인 환경요인의 영향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반대 급부로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관리학은 가정생활의 발전과 가정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점에서 가정관리학의 전문성을 논의하는 것이 의의 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II. 가정·가정관리학

1) 가정(Household)

여기에서는 먼저 가정관리의 주체인 가정에 관한 정의를 재정립한 후에 가정관리학의 전문성에 관해서 서술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가정은 매우 여러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정의될 수 있겠으나,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Egner의 정의를 소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 Egner은 “개인 가정은 인류 역사 시초부터 존재하는 경제체계(economic system)이자 사회체계(social system)으로서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제단위이며 한 사회의 범주내의 인간 집단으로서 공동의 필요충족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단위이다”라고 하였다.

같은 견해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Hesse, Nicklich, Dubberk 등은 개인가정은 “소비경제 주체”라고 정의한다. 이들은 가정은 가족의 직접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재화를 생산하여 소비하는 “본래의 기업”이라고 하여 기업 경제적인 면에서 설명하고, 가정의 경제적 행위의 목적이 개인적 소비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유일한(unipue)한 기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가정의 대부분의 생산적 기능이 기업으로 이관되고, 가정에서는 2차적인 생산 즉 가정노동과 함께 소비활동을 통해서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가정관리 과정이 생기게 되었다.

사회적인 면에서 볼때, 가정은 최소의 기본적인 사회체계로서 소비의 협동체계이다. 가정내에서는 극히 私的인 방식으로 여러종류의 일이 행해지는데,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금전과 재화를 사용하고 감정과 경험이 교환되고, 서비스가 행해지

는 일상 공동생활의 場(장)이다.

고대 Greece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Xenophon은 가정을 'oikos'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래 경제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차적으로는 가정, 그리고 농장, 기업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 'Oikonomia'는 재정의 원리를 말하며 이것은 시민생활의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렇게 볼때 Xenophon의 가정론은 가정이 '본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뒷바침 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가정은 하나의 경영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가정은 실제로 어떤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Schweitzer 가정구조분석론을 기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을 구성하는 요소는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가족의 구성, 규모, 가족의 건강 등 현재 상태, 요구수준등 가족의 한 시점의 상태이고,

둘째는 가정의 기술적인 상태로서 일상적인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관리상태를 말하며, 각생활자원의 구매, 저장, 가족관리등의 노동분야와 실제작업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계, 기구와 설비, 시설의 상태이다.

셋째, 경제적인 상태로서 소득의 크기, 소득의 유형, 자산상태 그리고 생계비 구조등이다.

넷째, 노동경제적인 면에서 노동이 가능한 가족원, 가정내노동, 가정외노동의 노동요구시간, 노동자산상태 등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network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 관계형태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가정은 현대사회속에서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현대가정이 갖는 경향을 잠시 살펴보면 가족수의 상대적 축소, 역동적인 생활표준, 심한 시장의존성, 가치분 소득의 다양화, 자유시간의 증가, 소비재와 서비스의 대량제공, 여성취업의 증가, 집단적 요구의 증가, 인간관계(가족관계)의 민주화, 사회적 보장의 점진적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경향에 따라 현대 가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우

선 가족의 문제로는, 가족간의 역할갈등의 문제, 권력구조의 문제, 자녀양육의 원칙과 기술적인 문제, 노인문제 등을 들 수 있고 다음은 자원사용 문제로서, 소득의 취득과 분배문제, 시간 배정 활용문제, 자원사용에 관한 정보, 기술, 지식의 도입과 활용문제, 그리고 소비자문제등이 포함된다.

2) 가정관리학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은 현대가정에 있어서 가정관리학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반적으로 요구가 단순하고 낮은 차원이거나 자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모든일이 관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관리"라는 과정의 의미가 미미하다. 가족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서 활용가능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당면했을 때 세워놓은 목표에 성취하려고 할 때는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관리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일반경영학 이론을 도입하여 가정관리를 하게 된다. 즉 가정관리동기이론, 관리과정,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자원론 및 체계이론등이 도입된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거니와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는것을 목적으로 경영한다고 한다면, 가정은 최소의 비용으로 가족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경영하게 된다. 다시말해서 일반기업경영은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人事 관리와 물자관리를 하게 되나 가정관리는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가족관리와 자원관리를 하게 된다.

가정관리학은 현대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명,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모색하는 한편, 가정생활 문화를 전승, 재정립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정관리학의 학문적 전문성

가정관리학은 Janus headed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학문적인 분야와 직업적인 분야로 구분해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학문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관리학 연구에 있어서는 관리의 주체인 가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된다. 현대가족의 특성의 파악과 분석은 사회학, 가족의 발달적 특성은 심리학, 자녀의 이해는 교육학과 심리학, 노인의 문

계는 노인학등 인접학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부부의 역할 갈등의 문제, 부모자녀간의 갈등, 청소년자녀문제, 노인문제등을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는데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것이고 그 학문자체를 그대로 접합하여서는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하면 위에 말한 가족사회학, 아동학, 노인학, 가족학등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가정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또한 물자관리에 있어서 자원의 각각의 특성, 취득방법, 사용법등의 지식과 정보는 영양학, 식품학, 의장학, 주거학, 경제학, 소비자 경제학등으로 지원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것도 역시 가정의 운영에 통합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가정의 문제에 작용하는 변수들은 매우 복잡하므로 어느 한가지 분야의 이론만으로는 원인분석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제시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정관리연구에 있어서 Deacon, Maloch, Firebauch 등은 전체적인 문제점을 조망하고 그와같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체계적 접근 방법은 최근 많은 학문연구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가정의 다원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파악·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족을 하나의 system으로 보고 system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를 여러가지 측면으로 관찰, 분석하는 동시에 가족 system은 두 개의 하위체계 즉, 사회심리학적 하위체계(psychosocio-subsystem)와 관리적 하위체계(managerial-subsystem)로 보고 그들의 상호작용관계를 관찰, 분석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가족의 문제와 자원관리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Classen은 가족을 정서적 체제(Sympathie-system), 권력체제(Dominanz-system), 실제 사무체계(Sachbezug-system)등 3개의 하위체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관리학은 가족의 문제와 자원관리의 문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된다. 최근

에는 가족의 문제로서 아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원관리 문제 중에서 소비자 문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한 가정의 목표달성과 가치실현을 위해서 고려하게 되는 하나의 분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아동학, 주거학, 가족학, 소비경제학 등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이 가정관리학이 아니고 가정관리학은 그러한 분야를 통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산업화로 인하여 자원관리가 시장구조를 통한 소비자문제로 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 가정관리학에서 소비자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시 가족을 별개로 놓고 소비자 문제만을 다룬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비자경제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가정관리학의 직업적 전문성

학문은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학문적으로 도출된 원칙이나 누적된 지식이 실제 가정생활에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실상 지금까지 가정관리학 연구자들의 당연한 과제라고 본다.

어떤 이론이 실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져야 할 요건이 있다. 우선 실증적으로 검증이 된 이론이어야 하고, 보다 구체적이며 가능한 한 가능성이 있는것이 더욱 좋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는 위의 세가지 조건을 전부 갖추지 못하는 이론도 있을 수 있다.

가정생활은 모두 unique한 형태로 매우 다양하게 영위되고 있으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 가족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가정관리학이 실제 가정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면 먼저 가정관리 이론을 생활에 접합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을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가정생활상담, 소비자 문제상담, 가족문제 상담등의 직업이 바람직하며 보다 광범위하게 이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정 저널리스트와 가정생활정보센터의 전문요원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는 가계조사 분석요원, 각 기업의 소비자 전담요원으로서 공헌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정생활의 구조적인, 기능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종래 가정의 기능이 사회로 이관된 점을 인식하여, 가정과 사회가 함께 가정생활의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조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가정생활의 안정과 발전을 강구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가정과 가정관리학의 개념을 재정리하고 그에 따른 가정관리학의 전문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가정관리학은 현대 가정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가족 이론과 소비자 이론을 통합하여 가족의 가치 실현과 욕구 충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수 있는 이론을 축적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동시에 가정생활의 문제해결과 가정생활 내지 가정문화의 발전을 위한 직종을 개발하여 가정관리 이론이 직접적으로 가정

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문숙재,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인류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4호
- 장명옥, 가정관리학, 교문사, 서울, 1981.
- Egner, E, Der Haushalt, Berlin, 1957.
- Blosser-Reisen, Lore, *Grunlagen der Haushalts-fuhrung*, Burbucherei Wilhelm Schneider: Baltmannsweiler, 1975.
- Schweitzer, R.V., *Haushaltsanalyse und Haushaltsplanung*, Berlin, 1968.
- Deacon & Firebauch,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 Bacon, Inc., Boston, 1981.
- Maloch, Francill & Deacon, Ruth E., “Proposed Framework for Home-Management,” *Journal of H.E.* 1966 58, 667-668.
- Paolucci, B., Hall, O.A., & Axinn, N., *Family Decision Mahing-An Ecosystem Approach.*, John Wiley & Sons, 1977.

아동·가족학분야의 전문성과 영역

명지대학교 이 희 자*
충북대학교 정 영 숙

아동학분야 전문성과 영역

아동·가족학의 전문성과 영역을 논함에 있어서 먼저 아동·가족학의 학문적 성격을 정의해보고, 이 학문이 추구하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적 위치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문발달의 발전적 과정과 전공자의 취업상황 및 직업개발, 지역사회에의 공헌, 학문발달의 장애요소, 학문의 문제해결과 영역확대를 위한 제언의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가정학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과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데, 가족복지적 측면에서 가장 오랜 관심사였고, 처음부터 강조된 분야가 바로 아동 및 가족분야이다.

아동·가족학의 학문적 특성은 인간의 행동과 발달을 연구하는 것인바, 인접학문인 심리학·사회학·교육학·문화인류학 등의 제학문과 관련하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환경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유대 속에서 인간과 가족생활을 연구·지도·봉사하는 학문분야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가족에 대하여 더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의가 높은 사람들은 아동·가족학의 분야에서 공부하며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아동·가족학이 추구하려는 목표달성을 위하여는 제학문의 이론을 기초로 최근의 통합학문적 접근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과 인간·가족발달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방법(Ecosystem approach)

ch)으로 연구·응용하여야 한다.

아동·가족학의 목표 및 사회적 역할

아동학에서 추구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인과 가족의 행복감 증진
-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수행 교육
- 변화속의 인간관계 수립훈련
- 성공적 가족생활형성 능력함양
- 자녀양육 기술습득(부모교육)
- 아동·가족문제 상담자 훈련
- 유아·청소년·성인교육자 양성
- 가족생활연구를 통한 정보제공
-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자원봉사
- 관련직업의 개발
- 아동·가족복지를 위한 정책수립·제안
- 문제가족 발생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장애아·장애자가족 이해 및 적응력 훈련
- 편부·편모가족에 대한 준비교육

위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은 크게 교육·훈련, 직업개발 연결, 사회공헌·봉사이다. 아동학을 전공하는 가정학자는 다음의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찾아야 한다.

1. 교육·훈련의 위치

- ① 가정
- ② 탁아소·시설·기관·병원·공장
- ③ 유아원 및 유치원

- ④ 장애아 학교
- ⑤ 중등학교
- ⑥ 대학교
- ⑦ 정부·시립기관
- ⑧ 청소년 지도자—스카우트·YWCA·YMCA·
늦어준 후계자 양성기관·각종 청소년클럽 및 조직

2. 직업개발·확충

- ① 종일제 유아원·탁아소 개설
- ② 아동·가족문제 상담소 확대
- ③ 연구소 설립
- ④ 아동·가족 전문잡지 발간
- ⑤ Mass Com 과의 연결—TV Radio 신문
- ⑥ 사회교육기구개설—부모교육 등

3. 사회공헌·봉사역학

- ① 상담지도—아동·청소년·결혼·부부·부모·노인·장애자가족문제
- ② 가족생활 홍보자료 제공
- ③ 지역사회 가족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④ 레크레이션 및 여가활동 프로그래머—지역사회, 정부기관, 사설기관, 교회.

아동·가족학분야의 교육·훈련, 직업개발, 사회봉사의 측면에서 과거·현재의 상황과 미래지향적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아동·가족분야의 발전과정

대한가정학회가 1947년에 창립되었고, 1958년 제 5회 총회에서는 의·식·주·아동·가족관계 경제부를 두었다. 1959년 학회지 창간호에 아동부와 가족관계부의 논문이 게재된 주제들을 살펴보면, 세 세대의 가정(주 정일), 사춘기의 문제와 지도(최이순), 어린이와 놀이(이 태현), 어린이와 장난감(배 선자), 과거형의 부모님과 현대형의 부모님(이수일)이었다. 2호(1960)에는 가족관계와 아동문제(주 정일), 3호(1962)에는 유아기 경험과 개성 발달(정 정순)이란 주제가 실렸었다.

학회의 조직부서를 보면 학회성립 초기부터 아동부와 가족관계부가 있었으며, 월례회를 통하여 부별 연구 및 활동이 활발하였던 기록이 있다. 1964

년에 이르러 각부서를 재편성할 때에 아동부와 가족부가 없어지고 대신에 가정경제·가정관리부가 새로 생겼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아동·가족에 관한 연구물은 나왔으나 표면적으로는 가정관리 분야에서 권장하면서 그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1964년 연세대에서 가정학과가 가정대학으로 승격되었을 때 의·식·주생활학과로 되었고, 그 이후 이화여대, 숙대, 서울대학에 가정대학이 설립되었을 때도의·식생활·가정관리과의 3개학과만이 신설되었다.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학과신청에 있어서 아동발달 및 가족관계학과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삭제된 바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아동·가족분야의 교육·연구·직업 및 봉사활동이 매우 위축되었고 가정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었다.

1972년에 이르러서야 숙대에 아동복지학과가 생겼고, 그 이듬해 연세대에 아동학과가 신설되었으며, 1974년에 가정학회 부서에 다시 아동·가족부가 다시 부활되면서 아동·가족연구의 중요성이 새로이 대두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아동·가족분야의 연구논문(석사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아동학도들은 연구의 뒷받침을 해줄 아동학회가 조직되기를 기대하였던 바, 1979년에 영남대학에서 있었던 가정학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아동학회 조직에 대한 발제를 하게 되었다.

1979년 12월에 한국아동학회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으로서 주정일교수가 추대되었고, 학회가 석사학위논문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처음에는 약 40여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에는 한국아동학회의 회원이 300여명에 이르고 있어서 아동·가족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활동이 크게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회가 1980년에 창간되었고, 1년에 1회 발간되던 것이 1985년부터 2년 2회씩 발간되어왔다. 아동학회 총회에서는 석사학위 논문과 국내의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에서 배출되는 박사들도 학계에 진출하는 관문으로서 통과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그 주제들을 개관하면, 장애자의 해(1981)

에 “창애자도 우리 어린이”, 그후에 “취업모와 자녀문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현대가족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역할”등이다. 여기에 아동·가족학이 통합학문으로서 더욱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정학자 이외에도 심리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 등의 각 분야의 학자들을 참여시키었다. 또한 아동학회는 회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요구가 강렬한 연구방법론에 관하여 워크샵을 계획한바, 1985년 12월에 있는 1차 워크샵에 이어 금년 11월에 2차 워크샵에서는 “아동·가족연구를 위한 고급통계”에 대한 것으로 2일간에 걸쳐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회원구성원들을 보면, 가정학자와 유아교육·간호학·사회사업·심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듬지기 여러 관점에서, 여러 접근방법으로 아동·가족의 문제를 연구하여 응용학문으로서 실천적 특성을 다져가고 있다.

대학의 아동학과 설치는 70년대에 오직 2개였고, 각 대학교에서 아동학과 신설요구가 많았으나 유아교육과가 증설되면서 아동학과에 대한 요구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80년대에 와서야 전주우석 대학에 아동복지학과가 생기고, 성균관대와 효성여대 아동학과, 서울여대에 아동학과가 신설되고 금년에는 경주의 동국대학교에 불교아동학과가 생겨서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이상과 같이 아동학 분야에서의 교육·연구 및 학회활동, 학과증설 등의 발전적 면모에 있어서 기대수준에는 못미쳤으나 서서히 증대되었고, 각 대학에서는 최근에 아동학과 신설에 대하여 더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동·가족분야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취업상황과 직업개발

그동안의 아동·가족학의 교육성과는 전공자 또는 비전공자로 하여금 훌륭한 가정인 즉, 부부·아내·어머니의 소양을 길러주는 것에 목표를 두어 가정생활의 향상에는 공헌하여왔으나, 사회와의 연결상태가 미약하여 취업을 통한 사회발전에 공헌할 기회는 거의 열리지 못하였다. 산업사회의 필연적인 변화후세 속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역할 증대, 그리고 경쟁사회에 대한 준비교육으로서의 조기교육, 유아교육의 붐을 타고 아동양육·아동교육·가족생활의 사회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아동·가족분야에서 훈련받은 아동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직업·위치가 확대되어야할 전망이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아동학과가 학문적 성격상 유아교육과와 사회사업과등과 중복되는 일면이 있어서 취업·진로면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학분야에서는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에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물적 환경과 관련하여 가족·사회·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아동을 넓게 이해하므로 보다 폭넓은 범위 안에서 아동을 양육·교육시킨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즉, 아동학은 제학문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적용시킴으로서 아동으로 하여금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진 급변하는 사회의 성숙한 인간상으로 양육·교육시킴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유아교육과는 3세 이후와 학령전 아동에게 관심을 두고 있고 제도적 교육에 초점이 있으나, 아동학과는 비의도적 교육과 유아의 연령범위를 태아로부터 무덤에까지로 연장할 정도로 가족주기전체에 학문적관심을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아원의 조직과 운영은 여러 형태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즉, 종일제 운영과 영아반(infant program), 융통성있는 시간제, 유아원 교사의 가정방문제, 장기취업모 혹은 출장모를 위한 대리모역할제, 정상아와 장애아의 통합반, 독자를 위한 형제관계 조직의 통합반 운영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아원의 증설과 신설이 시급히 요청된다. 美國의 예를 들면, 유아원들은 거의가 가정대학 아동학과에 부설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호응을 대단히 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 연결되어 더욱 성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직업적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아동·가족학 분야의 교육과정은 가족 발달 및 가족관계학적 성격, 인간발달학적 성격, 교육학적 성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교과목 내용으로 선수과목으로, 기초적학문의 영역인 심

〈표 I〉 아동 및 가족 분야 모형 교육과정

전공필수과목 : (1학년 : 3학점 2학년 : 11학점)
(2학년 : 12학점 4학년 : 9학점)

교과목명	학년 및 학기	학점	시간	비고 (영역)
가정학원론	1-1	3	3	B
가족생태학	1-1	3	3	F
부모자녀관계	2-1	3	3	F
유아기의 발달	2-1	3	3	D
아동기의 발달	2-2	3	3	D
아동연구방법론	2-2	3	3	B
아동관찰	3-1	2	4	D
유아교육과정	3-1	3	3	E
가족관계	3-2	3	3	F
아동의 놀이활동과 교	3-2	3	3	E
가족분석	4-1	3	3	F
유아교육실습	4-1	3	3	E
졸업논문	4-2	3	—	—

계 38학점

전공선택과목 : (1학년 : 6학점 3학년 : 15학점)
(2학년 : 18학점 4학년 : 12학점)

교과목명	학년 및 학기	학점	시간	비고 (영역)
심리학개론	1-2	3	3	B
인류학	1-1	3	3	B
아동영양	2-2	3	3	D
아동복지론	2-2	3	3	B
가족과사회	2-1	3	3	F
아동문학	2-1	3	3	E
아동예능	2-2	3	3	E
아동생리학	2-1	3	3	B
부모교육	3-2	3	3	F
유아교육이론	3-1	3	3	E
유아교육기관운영	3-2	3	3	E
성인노년심리	3-1	3	3	D
아동지도	3-2	3	3	D
아동발달세미나	4-1	3	3	D
특수아동	4-1	3	3	D
통계적방법	4-2	3	3	E
유아이론및비교연	4-1	3	3	D

계 51학점

출처 : 대한가정학회지 20권 2호

리학·사회학·문화인류학·교육학·복지사회·등의 교과목들을 들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유아교육이론·아동심리학·인간발달·가족관계·가족과사회, 가족생태학, 가족분석·육아이론·비교아동지도·아동관찰·문학 속의 아동 이해·유아교육과정·아동과 음악, 미술, 자연·아동과의·식·주생활·특수아동교육, 가족상담, 청소년의 심리이해·아동놀이지도·가정과 지역사회·유희치료·유아교육실습·유아교육기관 운영·결혼과 가족·아동연구방법론·유아연구(졸업논문)·아동복지·정신위생 부모자녀 관계·부모교육·아동측정도구·아동상담·아동건강·아동놀이감 제작용의 교과목들을 대학의 조건과 사정에 따라 개설하고 선택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표 I 참조, 아동·가족학 분야의 교과과정모형 예시〉 이러한 교과들은 이론적 내용에 촛점을 두어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는 실제에 적용하는 데는 곤란하므로 임상실습과 연결시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미리 기능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에서는 아동학의 교과들이 이론과목으로 운영되어 온 것들 부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개선하는 것도 아동학의 발전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파로서는 이론교육을 실습현장과 연결시키지 않는 정도 개선점이 있으나 가정학과 또는 가정교육과나 가정관리학과와의 체제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어떤 학문이 어느 영역에 들어 있는가가 그 분야가 발전하는데 크게 촉진요인으로 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아동학 전공자의 취업현황을 보면 유아교사, 중등학교 가정교사, 연구원, 대학원 진학, 사무직(아동관련 회사), 복지기관, 농번기 탁아소 등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일하려면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즉, 중등 교사자격증·유치원 교사 자격증·사회복지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거쳐야만 달성할 수 있는 직업위치가 있다. 그런데 실제 대학에서는 이러한 모든 직업적 가능성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자격증 수여 범위를 정하여 놓고 한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써 먼 장래에까지 이르는 준비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

다. 이러한 조건은 개선되어야 하는데, 적정범위 교과를 이수하였을 때 가능한 관련 자격증을 제한 없이 수여 또는 시험제도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게 열어놓아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공헌봉사(Extention Service)

가정학은 사회와의 연결관계가 약하면 가정 안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고, 더욱이 직업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가정학은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설 자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가족학과와 연계가 되는 연구·봉사의 기관이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 가정생활문제 연구소, 아동상담소, 가족상담소, 청소년 상담소,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부대학, 주부대학, 신부교실, 노인교실, 예비부모교육 등의 기구가 대학교와 정부기관, 종교단체가 지원하던가 개인이 설립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여 상호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새롭게 배출되는 아동학 전공자와 사회의 직업과 연결되어 기관들은 새로운 연구자료와 정보를 대학에 전해주고, 대학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연구한 학자들은 아동·가족학 학문이 extention service가 없으면 마치 병원이 없는 의과대학과 같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과 봉사기관이 많이 생기면 아동·가족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직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고, 그들은 삶의 보람과 가치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양쪽 영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기관이나 봉사기관이 생기려면 정부차원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기관의 활동영역과 가치는 현실화되고,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연구자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계속하여 단계적으로 기관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정지하지 않고 항상 주변의 사회변화와 가정생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적인 태세를 갖추어

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이 분야를 더욱 강조하게 된 동기는 그간의 가정학 발달에 대한 반성으로 가정학이 너무 전문화·세분화되어 현실의 문제에 대입되기 어렵고, 너무 기술론적인 내용에 치우치는 바람에 인간의 문제를 통한시한 것이었음을 지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가족학 분야는 인간본위의 생활 영역에서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며,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가족학 발달의 장애요소

아동·가족학 발달에 장애를 주는 여러가지 조건과 요인들이 있으며, 이러한 장애요소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동·가족학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적인 요소를 제시해 본다.

1. 아동·가족학분야가 가정대학내에 독립적으로 개설되지 않고, 가정관리학과에 통합되어 있어 왔다.

2. 가정학자들의 사회적 기대가 사회적 역할보다는 가정적 역할 쪽에 치우치는 등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다.

3. 아동·가족학 전공자의 기초학문분야의 교육·훈련 부족으로 아동학의 특성인 제학문의 통합·응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4. 통합학문의 요소뿐 아니라 독자적 학문영역 개발에도 미약하였다. 예를 들면 문제가족 예방치료, 장애자가족 조력의 역할 등을 가정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5. 아동·가족학 교육에 있어서 실습장이 될 수 있는 유아원시설이 가정대학·아동학과·가정학과·가정관리학과·가정교육과에 연결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써 실습·연구·봉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6. 아동·가족학교육에서 유아교사와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자격증 획득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7. 유아교육과가 아동교육과 아동의 문제해결을 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은 잘못이다. 왜

나하면 아동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단기적인 교육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의 배경, 가족발달적 접근을 적용시키므로써 더욱 아동교육·아동상담에 효과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사회와 정부기관에 아동·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부서의 위치가 약하여 포괄적인 문제해결기구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

9. 한국사회의 전통성과 근대성을 잘 조화시켜 개인과 가족생활의 복지와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따라서 정책에 반영하여 강하게 밀박침을 받을 수 있는 연구업적과 분위기 조성이 약하였다(정책연구과제가 거의 없음).

10. 가정학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이 소극적이어서 단지 현상유지, 전통성 고수, 변화에 대한 회피적 태도를 보이며, 타분야와의 중복현상에서 위치를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양보적인 편이다.

아동·가족학의 문제해결과 영역확대를 위한 제언

앞에서 아동·가족학 발달의 장애요소를 제시한 바, 장애요소를 줄이고 학문발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가지로 제언하여 결론짓고자 한다.

1. 아동학과의 증설 및 지역사회봉사기구(extention service) 설치
2. 아동학자의 사회적역할 담당영역확대—적극적인 참여와 탐구
3. 아동·가족학 교육에서 기초이론과 임상실습 강화
4. 대학내에 유아원 부설 및 인근 유아원과의 협력체제형성, 활용
5. 아동·가족학자라야 공헌할 수 있는 독자적 학문영역 개발

6. 각종 관련 자격증 획득기회 개방
7. 아동·가족 프로그램 및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승격과 예산할당
8. 학자들의 연구의욕 증진과 정책연구에의 높은 참여도려
9. 아동·가족부지를 위한 법령 및 정책 수립 추구
10. 학회를 통한 아동·가족학자들의 정보교환, 공동연구 추진, 연수회 개최의 강화

참 고 문 헌

- 大韓家政學會, 大韓家政學會史, 1984.
 文秀才·李琦烈, 韓國 家政學의 未來發展을 爲한 檢討, 대한가정학회지 22권 3호, 1984.
 박성연, 1980년대를 위한 가정학 계열 모형 교육과정—아동학 분야, 춘계학술대회 1982.
 張明郁, 家政學 原論, 敎文社, 1982.
 정영숙, 大學教育에 있어서의 兒童學의 위치, 대한가정학회지 19권 4호, 1979.
 조복희, 아동·가족학 연구의 새로운 시도, 대한가정학회지 24권 2호, 1986.
 우영희, 아동학의 사회적 기여, 대한가정학회지 19권 4호 1981.
 李恩海·姜蕙遠, 家政學 敎科課程의 內容選定 및 組織化를 위한 理論的 探索—大學教育을 中心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1권 3호, 1983.
 한국아동학회지 1권~8권 1호(1980~1987).
 AHEA, Definitive Themes in Home Economics and their impact on Families 1909~1984, 1984,
 Marjorie East, Home Economics Past, Present, and Future, 1980.
 Tate, Mildred, Thurow, Home Economics as a Profession, McGraw-Hill, 1973.